

李 “텃밭이 아니라 죽비”…金 “보수도 5·18 새겨야”

선택 2025 대통령 선거 D-15

광주·나주시 호남 첫 유세 맞대결
李 “광주 AI 중심도시 적극 지원”
金 “오월 광주, 피로 쓴 민주주의”
尹 탈당엔 “정치 전술”…“뜻 존중”

제21대 대통령선거를 2주일이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등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진보 진영의 핵심 지지 기반이자 보수의 불모지에서 두 후보는 각자 다른 메시지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서울에서 청년층 표심 잡기에 주력했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전라남도 나주시와 광주를 돌며 지지층 총결집에 나섰다.

이 후보는 나주에서 첫 유세를 열고 “호남은 텃밭이 아니라 살아 있는 죽비”라며 “민주당은 호남을 무조건적인 지지 세력으로 여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언제든 정치할 수 있다는 게 호남 민심”이라며 “그래서 민주당은 늘 호남 앞에 두리움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농업을 전락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미 농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쌀 값 안정화와 공익형 직불제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기여에 마땅한 보상을 하겠다”며 “햇빛 농사, 바람 농사 시대를 열고 송전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차등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7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연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 유세에서는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에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대로 배치하겠다고 했더니 2000장 이상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며 “수용이 불가능하다면 수용 가능하도록 키우면 된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무안군수와 통화로 대화를 나눴다.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면 제가 직접 관리해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며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통해 공항을 신속히 이전하고, 돈이 부족하면 정부 지원을 통해 반드시 할로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17일 오전 기습 탈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제명했어야 한다. 진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 전술상 보인 태도”라고 일갈했다.

같은 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김문수 후보는 방명록에 ‘오월 광주, 피로 쓴 민주주의’라고 적은 후 윤상원·박관현 열사의 묘역을 차례로 찾았다. 박 열사의 묘 앞에서 한참을 머무른 김 후보는 ‘박 열사가 돌아가신 뒤제가 광주교도소 같은 방에 수감됐었다. 5월만 되면 늘 아픈 추억이 떠오른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 후보는 이어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광주·전남·전북 현장회의에서 “5·18은 부패하고 독재하는 정치를 용납하지 말라는 광주의 명령”이라며 “보수 진영도 이 정신을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5·18의 희생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던 시대의 고통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이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서는 “그 뜻을 존중한다. 재판도 잘 받고 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 17일 대학생들이 내란세력 참배 반대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강에도 유의하길 바란다”며 예우하는 입장을 보여 논란을 키웠다.

이준석 후보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뤄진 젊은의사포럼 강연에 참여해 “지금의 2030 세대, 또는 40대 초반까지의 젊은 세대만으로는 50대, 60대, 70대 등 더 큰 세대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한 세대의 지지에만 의존할 수 없다. 최소한 다른 한 세대 이상을 설득하고 함께 가야 한다. 그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히고 소통하는 것이 저와 우리 당이 풀어야 할 과제이며, 지금도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5·18 45주년 기념일인 18일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등은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5월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전날 묘역에 참배한 김문수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5월은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하지만 가슴 아프고 슬픈 계절이기도 하다”며 “유족들과,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김용태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저희가 반성해야 한다. 비상계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엇보다 저희가 계속 잘못했다는 마음을 갖고 바뀌어 가겠다는 진정성이 중요한 것 같다”며 “앞으로 광주 시민 여러분들, 호남분들,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광주의 영령을 모시는 데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며 “(5·18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많은 분이 충격을 받았고, 특히 광주 시민의 충격이 더했을 것이다. 빨리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대통령 4년 연임제…국무총리는 국회서 추천”

이재명 후보, 개헌 공약 발표
“대통령 책임 강화·권한 분산”
결선투표제·지방 자치권 보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 같은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방안을 개헌안에 포함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을 지원하

는 기관’이라는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 엄정한 감시자로서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 다수당으로부터 독립성 유지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 마식으로 남발돼 왔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칙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미 합의한 대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며 “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대선 레이스 중반전 돌입…첫 TV토론서 격돌

이재명, ‘경제’로 수도권 중도 공략
김문수, ‘尹탈당’ 지지층 재결집 도모
이준석, “두 후보의 대안” 표발 같이

차기 대권을 향한 대선 후보들이 18일 밤 첫 TV토론에서 맞붙은 가운데 이번주부터 대권 레이스가 중반으로 접어든다.

초반 판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을 이어갔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추격하는 모양새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두 후보의 대안으로 자리

매김하려는 전략이다.

이재명 후보는 ‘힘지’ 영남과 ‘텃밭’ 호남 민심 공략을 마치고, 선거운동 2주차인 19일부터는 서울 용산구 대한 노인회 중앙회 방문을 시작으로 선거의 승부처로 불리는 서울·경기·인천에서 표발 같이 나섰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중도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대세론’에 쐬기를 박겠다는 행보다. 전국단위 선거의 승부는 중도층, 부동

층, 무당층 표심의 향배가 좌우해 온 만큼 선거 분위기가 예열된 선거전 중반부터는 ‘중도 구애’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중도층이 정치적인 사안보다는 경제 관련 사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염두에 두고 성장 정책 구상을 앞세워 수도권 유권자들에 소구할 방침이다. 기업을 찾아 경제 성장 비전을 제시하고, 수도권을 국제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K-수도권’ 정책 구상도 강조할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이재명 후보 추격전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최근 김 후보 지지율은 중도층은 물론 전통적 지지층에서도 흔들리는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지지층 분열과 중도층 이탈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윤 전 대통령의 당적 문제가 전날 해소되면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반(反)이재명’ 기조 아래 내부 단합을 도모하면서 총력전에 돌입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자신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전면에 내세워 이 후보와 적극적으로 차별화하는 한편,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희대 특검법’이나 ‘대법원 증원 법안’ 등을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제거를 위한 ‘폭거’로 규정하며 공세를 퍼졌다

는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의 각종 내홍에 대한 보수층의 실망감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중도층의 반감을 동시에 공략하면서 자신이 대안이라는 기조를 선거 중반에도 이어갈 계획이다.

선거 중반, 대선 판도의 변수는 윤 전 대통령 탈당이 미칠 여파와 이재명 후보에 대항한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꼽힌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전날 “공동 책임이 있는 후보가 윤석열과 함께 물러나야 한다”며 김문수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